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
결과보고 및 토론회

2020년 10월

 **SSN**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위원회

연구진

연구책임: 김도영(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 문현주(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진은설(사단법인 청소년과미래 대표)
김경옥(파란나라장애인주간활동센터장)
오창우(아동·청소년정신재활시설 우리야 대표)
오중철(지평경영컨설팅그룹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홍철(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자문위원(가나다순)

고수희(평안전문요양원 원장)
김지선(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윤상은(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참고사항

-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 결과보고회를 위한 요약자료로서 주요 연구결과만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추후 발간되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진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 둡니다.

2020년 사회복지 조사연구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결과보고 및 토론회

- 일시 : 2020. 10. 23(금) 16:00~18:00
- 장소 : 사회복지협의회 회관(2층) 삼다수홀
-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위원회
- 진행순서

시 간		소요 (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5:40	16:00	20	참가자 접수 및 개식	사회자: 김성건 사무처장 (제주사회복지협의회)
16:00	16:10	10	인사말씀	고승화 회장 (제주사회복지협의회)
16:10	16:30	20	[주제발표] ▪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진은설 조사연구위원 (사단법인 청소년과미래 이사장)
16:30	17:10	40	[토론] ▪ (아동·청소년) 김은영 소장 -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 (중장년) 강수영 소장 -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노인) 고경애 원장 - 소망요양원 ▪ (학계) 임유진 교수 -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좌장: 김도영 조사연구위원장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17:10	17:30	20	질의 및 응답	
17:30			폐회	

목 차

[주제발표]

-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1
- 진은설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조사연구위원 (사단법인 청소년과미래 이사장)

[토 론]

-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활동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제언 39
- 김은영 소장(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향후 과제 - 청장년기를 중심으로 49
- 강수영 소장(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제주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에 대한 토론문(노인분야) 55
- 고경애 원장(소망요양원)
- 제주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 결과발표회 63
- 임유진 교수(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주제발표문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진은설 이사장
사단법인 청소년과 미래

I. 서론

1. 연구 추진 근거

-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013년)을 통해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이고 생애주기 특성에 맞는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함께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3년) : 모든 국민의 생활보장과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구축,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
 - 포용국가사회정책추진계획(2019년) : 수요자 중심의 재구조화를 기본방향으로 하며, 생애주기마다 필요한 지원(돌봄, 배움, 일, 쉼, 노후)을 강화하고 소득·안전·건강·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기반에서 배제되거나 피해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함.
- 제주특별자치도도 아동·청소년 인구의 감소와 장년·노년층이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 속에 복지대상을 확대하고 촘촘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을 구축하는 등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으로 변화함.
- 제주특별자치도는 ‘모두를 배려하는 지역중심의 희망복지 제주 구현’을 위해 5대 전략과제와 실행계획에 맞춰 2020년 보건·복지 분야에 2,683억원을 예산을 투입해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및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등 제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해 나고 있음.
- 복지패러다임의 변화 및 보건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있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복지서비스가 전 생애주기의 단계적 복지 욕구에 따라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과 사업내용을 구분하여 예산 등이 적절하게 배분되어 추진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애주기별(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현황을 파악하고, 생애

주기에 따른 복지사업과 재정을 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향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문헌연구,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Focus group interview: FGI), 자문회의를 병행하여 진행함.

○설문조사

-생애주기(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별 집락표집을 통해 331명을 대상으로 함.

-6개 영역 44문항(일반적 특성, 도민의 삶과 사회보장, 사회복지 영역별 제주지역의 문제점과 가장 필요한 정책,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향후 사회보장정책의 방향)

○초점집단면접(FGI) : 생애주기별 복지(현장)전문가 7명을 대상으로 함.

○자문회의 : 예산 및 복지(현장) 전문가 중 3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함.

Ⅱ. 이론적 배경

1. 생애주기별 복지인구¹⁾

1) 총 인구추이

○2007년 대비 2019년 전국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인구는 증가하였으나, 일부 시도지역은 감소(서울, 부산, 대구, 전남, 전북, 경북)하였음.

-2019년 전국인구 51,337,425.5명이며, 제주인구는 663,488.5명임. 제주지역의 인구는 전국대비 1.3%를 차지하고 있음.

-2007년 인구를 100을 보았을 때 전국인구 104.49% 증가를 보인 반면, 제주인구는 118.72%로 17개 지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표 II-1> 지역별 주민등록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7년(1기)	2011년(2기)	2015년(3기)	2019년(4기)
전국	49,130,353.5	50,111,475.5	50,951,719	51,337,423.5
	100.00	102.00	103.71	104.49
제주특별자치도	558,877	568,323.5	611,337.5	663,488.5
	100.00	101.69	109.39	118.72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앙(年央)개념으로 제작성하여 제 공되는 자료(예시: 2019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 2019.1.1일과 2019.12.31일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

○제주지역 행정시별로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읍면동지역은

1) 제1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시작된 2007년부터 4년 주기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주기의 첫해마다 현황을 살펴봄.

감소²⁾함.

<표 II -2> 총 인구추이

(단위: 명, %)

구분	2007년(1기)	2011년(2기)	2015년(3기)	2019년(4기)
제주특별자치도	563,388	583,284	641,355	696,657
제주시	408,364	427,593	470,778	505,950
서귀포시	155,024	155,691	170,577	190,707

*출처: 제주도청 주민등록인구통계(외국인 포함)

2) 생애주기별 인구규모변화

○생애주기별 인구규모 변화를 전국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 1기에서 4기로 갈수록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는 감소하고 있지만 장년기와 노인기는 증가하고 있음.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장년기의 증가폭이 전국평균보다 높음.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모두 인구가 감소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의 경우 인구감소 비율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청년기도 인구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청년기인구 감소비율은 전국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장년기와 노인기는 인구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장년기의 증가폭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반면 노인기의 증가폭은 전국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 -3> 생애주기별 인구규모 변화-전국

(단위: 명, %)

구분	2007년(1기)		2011년(2기)		2015년(3기)		2019년(4기)		
	명	%	명	%	명	%	명	%	
0-6세 (영유아기)	전국	3,442,852.0	7.01	3,209,618	6.40	3,197,859.5	6.28	2,814,879	5.48
	제주특별자치도	45,460.0	8.13	40,618	7.15	42,647.5	6.98	41,437	6.25
7-12세 (아동기)	전국	4,007,727.5	8.16	3,362,064.0	6.71	2,828,178.0	5.55	2,829,619	5.51
	제주특별자치도	51,666.5	9.24	44,685.0	7.86	39,859.0	6.52	42,787	6.45
13-18세 (청소년기)	전국	4,074,702.5	8.29	4,167,152.5	8.32	3,713,732	7.29	2,995,066	5.83
	제주특별자치도	46,745.0	8.36	51,612.0	9.08	49,396	8.08	43,096	6.50

2) 인구감소 읍면동: 추자면, 일도1·2동, 삼동2동, 용담1·2동, 건입동,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구분		2007년(1기)		2011년(2기)		2015년(3기)		2019년(4기)	
		명	%	명	%	명	%	명	%
19-34세 (청년기)	전국	12,155,825	24.74	11,423,297	22.80	11,130,791.0	21.85	10,562,865.0	20.58
	제주 특별자치도	127,339	22.78	115,115	20.26	121,135.0	19.81	125,543.5	18.92
35-64세 (장년기)	전국	20,740,142.5	42.21	22,423,715	44.75	23,528,631.0	46.18	24,416,379	47.56
	제주 특별자치도	227,457.5	40.70	245,898	43.27	275,045.0	44.99	313,670	47.28
65세 이상 (노인기)	전국	5,442,346	11.08	5,525,630	11.03	6,552,528.0	12.86	7,718,615.5	15.04
	제주 특별자치도	71,074	12.72	70,396	12.39	83,255.0	13.62	96,956.5	14.61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³⁾

3) 주민등록 연앙인구는 행정안전부에서 공표하는 연말기준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연앙(年央)개념으로 재작성하여 제공되는 자료(예시: 2019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 2019.1.1일과 2019.12.31일 주민등록인구의 산술평균)

2.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

○생애주기구분 : 아동·청소년(0~18세), 청장년(19~64세), 노인(65세이상)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추이 분석을 위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회계연도 결산서 자료를 활용(특별회계는 제외)하였음.

○사회보장예산구분 : 주무부처 사업 중심, 그 외 부서는 사업 중 사회보장이라 판단되는 사업의 예산을 포함.

1) 생애주기 사회보장 예산 추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예산은 2011년 408,045백만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9년 1,349,985백만원으로 나타남. 이기간 동안 예산은 약230.84% 증가하였고, 도 전체 예산 증가율보다 2배 이상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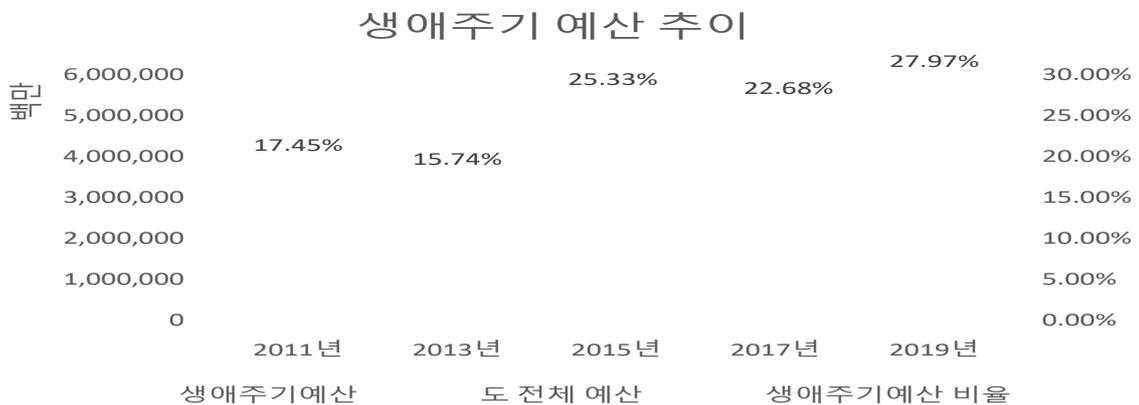
<표 II-4>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생애주기예산	408,045	461,253	817,519	934,103	1,349,985
생애주기예산 비율	17.45	15.74	25.33	22.68	27.97
도 전체 예산	2,337,952	2,929,853	3,227,408	4,118,605	4,826,958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 2019년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임

*예산은 세출결산기준 일반회계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음



[그림 II-1]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 예산 추이

2)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 추이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예산을 비교하면, 전생애 예산이 가장 높으며, 아동·청소년, 노인, 청장년 순으로 나타났음. 특히 청장년의 경우, 다른 생애주기에 비해 매우 낮은 예산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사업 특성상 특정 생애주기로 구분하기가 모호한 경우와 전체 생애주기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전생애로 구분.

〈표 II-5〉 연도별 생애주기별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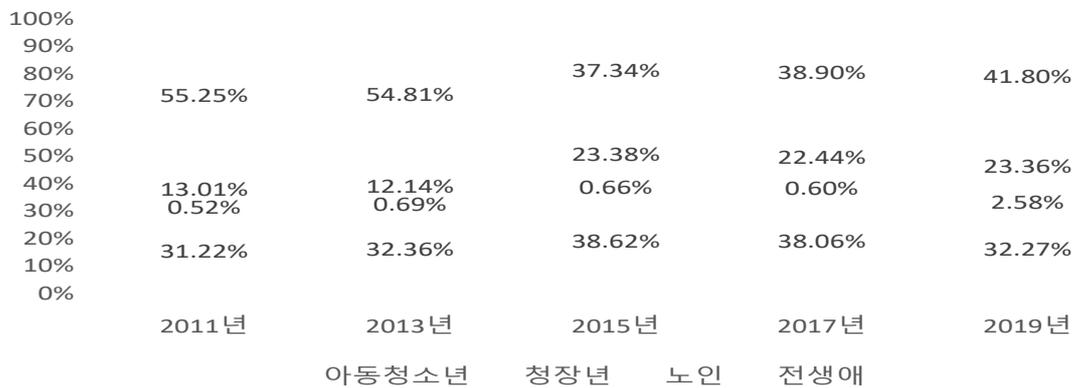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아동· 청소년	127,386	151,694	317,144	356,564	435,793
	31.22	32.89	38.79	38.17	32.28
청장년	10,533	11,096	12,138	14,006	36,672
	2.58	2.41	1.48	1.50	2.72
노인	53,170	56,027	191,171	209,703	315,304
	13.03	12.15	23.38	22.45	23.36
전생애	216,955	242,435	297,066	353,829	562,215
	53.17	52.56	36.34	37.88	41.65
합계	408,045	461,253	817,519	934,103	1,349,985
	100	100	100	100	100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 2019년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임

*예산은 세출결산기준 일반회계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음

연도별 생애주기별 비중



[그림 II-2] 연도별 생애주기별 예산 비중

(1) 아동·청소년 예산

○아동·청소년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등으로 큰 폭으로 증가함. 하지만 생애주기별 예산에서 아동·청소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음.

<표 II-6> 연도별 아동·청소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아동·청소년	127,386	151,694	317,144	356,564	435,793
	31.22	32.89	38.79	38.17	32.28
합 계 (생애주기 예산)	408,045	461,253	817,519	934,103	1,349,985
	100	100	100	100	100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 2019년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임

*예산은 세출결산기준 일반회계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음

(2) 청장년 예산

○청장년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생애주기별 예산에서 2% 전후 비율을 보이다 2019년 2.72%로 최고치를 갱신함. 이는 청년의 일자리사업지원에 따른 신규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임.

<표 II-8> 연도별 청장년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청장년	10,533	11,096	12,138	14,006	36,672
	2.58	2.41	1.48	1.50	2.72
합 계 (생애주기 예산)	408,045	461,253	817,519	934,103	1,349,985
	100	100	100	100	100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 2019년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임

*예산은 세출결산기준 일반회계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음

(3) 노인 예산

○노인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 돌봄·여가분야 지원이 증가하면서 전체예산이 급격히 증가함. 생애주기별 예산에서 노인 예산비율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 23%내외의 비율을 보임.

〈표 II-9〉 연도별 노인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노인	53,170	56,027	191,171	209,703	315,304
	13.03	12.15	23.38	22.45	23.36
합 계 (생애주기 예산)	408,045	461,253	817,519	934,103	1,349,985
	100	100	100	100	100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 2019년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임

*예산은 세출결산기준 일반회계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음

(4) 전생애 예산

○전생애 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생애주기별 예산의 비율은 2011년 53.17%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5년 36.34%까지 낮아진 이후 2019년 41.65%까지 다시 높아짐.

〈표 II-10〉 연도별 전생애 예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전생애	216,955	242,435	297,066	353,829	562,215
	53.17	52.56	36.34	37.88	41.65
합 계 (생애주기 예산)	408,045	461,253	817,519	934,103	1,349,985
	100	100	100	100	100

*본 자료는 제주특별자치도 2011년 ~ 2019년 각 회계연도의 결산서 자료에서 추출한 내용임

*예산은 세출결산기준 일반회계 금액이며 특별회계는 포함되지 않음

3. 생애주기별 전달체계

- 생애주기별 전달체계는 제주지역의 공공전달체계(행정)과 민간전달체계(집행)의 기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공공전달체계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 주민복지센터로 이어짐.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전달체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1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행 정 기 관			
		도 청	시 청	주민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1	2	43	
제주시	제주시	1	1	26	
	동지역	1	1	19	
	읍·면지역	동부	-	-	3
		서부	-	-	4
서귀포시	서귀포시	-	1	17	
	동지역	-	1	12	
	읍·면지역	동부	-	-	3
		서부	-	-	2

*출처: 김정득 외(2019).

1) 아동·청소년

- 아동·청소년 전달체계는 주로 요보호 중심, 시설 중심으로 발전해 오면서 행정서비스 전달체계도 각 서비스 별로 다원화되어 있으며, 연계체계가 미약하여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함.
- 수요자 중심이 아닌 기관이나 시설중심의 전달체계를 구축함.
- 아동·청소년복지 사업은 이분화되어 아동복지는 주로 보건복지부, 청소년복지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함. 정부부처의 사업에 대한 집행 및 서비스 제공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동 주민복지센터가 대부분 담당하며, 일부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위탁기관이 수행함.
- 민간 전달체계의 규모는 2007년 이후 매해 비슷한 수준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의 민간 전달체계의 규모는 청소년수련시설을 비롯하여 매해 조금씩 확대되고 있음.

<표 II -12> 2019년 도내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 민간 전달체계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아동양육시설	5	3	2
공동생활가정	5	4	1
지역아동센터	62	40	22
아동보호전문기관	2	1	1
아동관련기관·단체	5	5	0
청소년복지시설	7	5	2
청소년상담기관	3	2	1
청소년지원기관	1	1	0
청소년수련시설 ⁴⁾	25	15	10
청소년단체	33	27	5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2019),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2019)의 자료를 일부 수정하였음.

**도 단위의 기관도 포함하였음⁵⁾.

2) 청장년

- 청장년 공공전달체계는 다른 생애주기처럼 전담부처 및 대표적인 전달체계가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려움.
- 정부의 주요 복지정책에 대한 집행 및 서비스 제공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청년정책담당관, 일자리과, 여성가족청소년과, 건축지적과 등에서 주로 담당하고 있음. 일부 사업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음.
- 청장년의 민간전달체계의 규모는 2007년 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되거나, 간혹 1-2개소 증가하는 수준을 보임. 다만 청년의 경우, 진로 및 취업과 관련하여 사회적 이슈가 부각되면서 2017년 이후 기관이 신설되어 운영중임.

<표 II -13> 2019년 도내 청장년 사회복지서비스 민간 전달체계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사회복지관	10	7	3

4) 도내 청소년수련시설은 총 53개소로 직영시설은 28개소임.

5) 도 단위 기관의 운영은 다양하다. 도 단위의 업무만 하는 경우도 있으나, 제주시 단위의 기관이 없는 경우, 도 단위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시 단위의 역할까지 같이 수행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도 단위의 기관으로 설치되었으나 제주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경우가 있어서 도 단위의 기관도 그 소재지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포함하였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자활센터	4	2	2
자원봉사센터	2	1	1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	2	0
(다문화)가족관련기관	7	6	1
여성인권·상담기관	5	4	1
고용·취업지원기관	5	3	2
청년지원기관	1	1	0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2019)의 자료를 일부 수정하였음.

**도 단위의 기관도 포함하였음.

3) 노인

- 노인복지서비스는 주로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를 통해 어르신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음.
- 과거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사회보호가 필요한 의존성 노인을 대상으로 한정하였지만, 오늘날은 노인 누구나 노인복지서비스의 대상이며 일정 연령 이상의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매년 노인사회복지서비스 민간 전달체계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표 II-14> 2019년 도내 노인 복지 서비스 민간 전달체계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노인주거복지시설	2	2	0
노인의료복지시설	64	44	20
재가노인복지시설	22	14	8
재가장기요양기관	119	94	25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경로당)	447	297	150
노인보호전문기관	2	1	1
노인일자리전담기관(수행기관제외)	3	2	1
노인복지기관·단체(홀로사는노인 지원센터, 광역치매센터)	3	2	1

*제주특별자치도(자료실)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2019)의 자료를 일부 수정하였음.

**도 단위의 기관도 포함하였음.

Ⅲ. 조사결과

1.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및 대상자 일반적 특성

○조사기간: 2020. 7. 6. ~ 7. 21

○표집 및 인원: 생애주기 및 지역을 고려한 집락(cluster)표집을 통해 제주도민 331명

○대상자 일반적 특성: 생주기별, 성별, 거주지, 가족 수, 직업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대상자의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Ⅲ-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 분		사례수(%)	구 분		사례수(%)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0~18세)	56(16.9)	직업	청소년	57(17.2)
	청장년(19~64세)	207(62.5)		자영업	18(5.4)
	노인(65세 이상)	68(20.5)		공무원	10(3.0)
성 별	남	128(38.7)		전문직	35(10.6)
	여	203(61.3)		사무직	36(10.9)
거주지	제주시 동지역	220(66.5)		생산기능직	2(0.6)
	제주시 읍면지역	26(7.9)		서비스직	36(10.9)
	서귀포시 동지역	57(17.2)		단순노무직	6(1.8)
	서귀포시 읍면지역	28(8.5)		전업주부	41(12.4)
가족수	1명	30(9.1)		농·임·축·어업	18(5.4)

구 분		사례수(%)	구 분		사례수(%)
	2명	79(23.9)		무직	46(13.9)
	3명	75(22.7)		기타	25(7.6)
	4명	80(24.2)		무응답	1(0.3)
	5명	48(14.5)	전체: 331(100.0)		
	6명	19(5.7)			

2) 도민의 삶과 사회보장

(1)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 만족 40.2%(133명), 보통 36.3%(120명), 매우 만족 11.8%(39명)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응답자의 52%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청장년, 노인 순으로 나타남.

〈표Ⅲ-2〉 삶의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1.8)	4(7.1)	12(21.4)	25(44.6)	14(25.0)	56(100.0)
	청장년	2(1.0)	24(11.6)	78(37.7)	86(41.5)	17(8.2)	207(100.0)
	노인	1(1.5)	7(10.3)	30(44.1)	22(32.4)	8(11.8)	68(100.0)
전 체		4(1.2)	35(10.6)	120(36.3)	133(40.2)	39(11.8)	331(100.0)

(2) 제주에 대한 소속감·연대감

제주에 거주하면서 소속감·연대감을 갖고 있는 지에 대해, 보통 32.9%(109명), 조금 느낌 28.7%(95명), 많이 느낌 23.3%(77명) 순으로 조사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의 소속감·연대감이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청장년, 노인 순으로 나타남.

〈표Ⅲ-3〉 제주에 대한 소속감·연대감을 느끼는 정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느끼지 않음	별로 느끼지 않음	보통	조금 느낌	많이 느낌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1.8)	9(16.1)	11(19.6)	22(39.3)	13(13.2)	56(100.0)
	청장년	4(1.9)	30(14.5)	69(33.3)	61(29.5)	43(20.8)	207(100.0)
	노인	1(1.5)	5(7.4)	29(42.6)	12(17.6)	21(30.9)	68(100.0)
전 체	6(1.8)	44(13.3)	109(32.9)	95(28.7)	77(23.3)	331(100.0)	

(3)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제주도에서 경험해 본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에 대해, 보통 46.8%(155명), 만족 33.5%(111명), 불만족 9.7%(32명) 순으로 나타남.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전체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노인, 청장년 순으로 나타남.

〈표Ⅲ-4〉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1.8)	2(3.6)	17(30.4)	26(46.4)	10(17.9)	56(100.0)
	청장년	5(2.4)	26(12.6)	108(52.2)	56(27.1)	12(5.8)	207(100.0)
	노인	0(0.0)	4(5.9)	30(44.1)	29(42.6)	5(7.4)	68(100.0)
전 체	6(1.8)	32(9.7)	155(46.8)	111(33.5)	27(8.2)	331(100.0)	

(4)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34.2%(13명), 희망서비스 부재 28.9%(11명), 복지 서비스의 질 불만족 21.1%(8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과 노인은 복지 서비스의 질 불만족, 청장년이 복지 기관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큰 이유로 꼽음.

〈표Ⅲ-5〉 제주지역의 복지서비스에 불만족한 가장 큰 이유

(단위 : 명, %)

구 분	복지관련 기관, 전문인력 부족	직원 불친절	서비스 질 불만족	희망 서비스 부재	낮은 접근성	복지기관, 서비스 정보부족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0(0.0)	0(0.0)	2(66.7)	0(0.0)	0(0.0)	3(100.0)
	청장년	2(6.5)	2(6.5)	4(12.9)	10(32.3)	1(3.2)	31(100.0)
	노인	0(0.0)	1(25.0)	2(50.0)	1(25.0)	0(0.0)	4(100.0)
전 체	2(5.3)	3(7.9)	8(21.1)	11(28.9)	1(2.6)	13(34.2)	38(100.0)

(5)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보통 57.1%(189명), 만족 18.4%(61명), 불만족 15.1%(50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전체적인 만족도가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노인, 청장년 순으로 나타남.

〈표Ⅲ-6〉 제주지역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2(3.6)	5(8.9)	26(46.4)	15(26.8)	8(14.3)	56(100.0)
	청장년	6(2.9)	41(19.8)	116(56.0)	37(17.9)	7(3.4)	207(100.0)
	노인	0(0.0)	4(5.9)	47(69.1)	9(13.2)	8(11.8)	68(100.0)
전 체	8(2.4)	50(15.1)	189(57.1)	61(18.4)	23(6.9)	331(100.0)	

(6) 도내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제주도내에서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으로는 노인 39.3%(130명), 청장년 29.3%(97명), 아동·청소년 23.3%(77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과 노인은 자신들을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한다는 반면, 청장년은 노인을 가장 중점에 두어야 한다고 함.

〈표Ⅲ-7〉 도내 사회보장 확대 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

(단위 : 명, %)

구 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1.8)	33(58.9)	9(16.1)	13(23.2)	56(100.0)

구 분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전체
청장년	22(10.6)	39(18.8)	65(31.4)	81(39.1)	207(100.0)
노인	4(5.9)	5(7.4)	23(33.8)	36(52.9)	68(100.0)
전 체	27(8.2)	77(23.3)	97(29.3)	130(39.3)	331(100.0)

3) 사회복지 영역별 제주지역의 문제점과 가장 필요한 정책

(1) 영역별 제주지역 문제의 심각성

영역별로 제주지역의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복지 영역 중 환경(73.1%), 고용(59.5%), 주거(57.4%), 안전(45.3%) 순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Ⅲ-8〉 제주지역 문제점의 심각성

(단위 : 명, %)

구 분	전혀 심각 하지 않음	별로 심각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심각	매우 심각	전 체
고 용	4(1.2)	27(8.2)	103(31.1)	153(46.2)	44(13.3)	331(100.0)
소 득	2(0.6)	37(11.2)	168(50.8)	107(32.3)	17(5.1)	331(100.0)
건 강	16(4.8)	40(12.1)	151(45.6)	98(29.6)	26(7.9)	331(100.0)
돌 봄	9(2.7)	43(13.0)	156(47.1)	92(27.8)	31(9.4)	331(100.0)
교 육	12(3.6)	55(16.6)	166(50.2)	81(24.5)	17(5.1)	331(100.0)
주 거	6(1.8)	30(9.1)	105(31.7)	114(34.4)	76(23.0)	331(100.0)
문 화	17(5.1)	38(11.5)	149(45.0)	95(28.7)	32(9.7)	331(100.0)
환 경	2(0.6)	14(4.2)	73(22.1)	117(35.3)	125(37.8)	331(100.0)
안 전	7(2.1)	37(11.2)	137(41.4)	111(33.5)	39(11.8)	331(100.0)

(2) 순위별 본인의 현재 걱정거리

응답자의 현재 걱정거리는 순위별 다중응답분석방법에 의해 1순위에 3%, 2순위에 2%, 3순위 1%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석한 결과, 건강이 519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득이 414점으로 그 뒤를 이음. 즉, 응답자를 중심으로 보면, 제주도민의 현재 걱정거리는 ‘건강’ 이라고 할 수 있음.

〈표Ⅲ-9〉 순위별 본인의 현재 걱정거리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고 용	138	70	35	81
소 득	213	134	67	414
건 강	318	134	67	519
돌 봄	36	46	23	105
교 육	81	48	24	153
주 거	66	74	37	177
문 화	21	36	18	75
환 경	81	78	39	198
안 전	39	42	21	102
응 답	331	331	331	
합 계	331	331	331	

(3) 본인의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방법

본인의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방법을 질문한 결과, 스스로 해결 66.4%(219명)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족의 도움 14.2%(47명), 주민복지센터나 시청의 도움(서비스) 6.7%(22명) 순으로 조사됨. 생애주기별로는 전생애에서 스스로 해결하거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Ⅲ-10〉 걱정거리에 대한 해결방법

(단위 : 명, %)

구 분	스스로 해결	가족의 도움	주변 도움	주민복지센터/시청 도움	의료기관, 시민단체 도움	사회복지기관·단체 도움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28(50.9)	10(18.2)	10(18.2)	2(3.6)	1(1.8)	4(7.3)	55(100.0)
	청장년	149(72.0)	28(13.5)	8(3.9)	14(6.8)	1(0.5)	7(3.4)	207(100.0)
	노인	42(61.8)	9(13.2)	3(4.4)	6(8.8)	2(2.9)	6(8.8)	68(100.0)
전 체	219(66.4)	47(14.2)	21(6.4)	22(6.7)	4(1.2)	17(5.2)	330(100.0)	

(4) 도움제공 시 이용의향

개인의 문제발생 시에 해결을 위한 도움을 제공할 경우 이용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이용하고 싶다 55.0%(182명), 잘 모르겠다 19.3%(64명), 반드시 이용하겠다 19.0%(63명) 순으로 조사됨. 생애주기별로는 전생애에서 대체로 이용의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표Ⅲ-11〉 도움제공 시 이용의향

(단위 : 명, %)

구 분	이용하지 않겠다	하고 싶으나 여건 안된다	잘 모르겠다	이용하고 싶다	반드시 이용하겠다	전 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2(3.6)	1(1.8)	16(28.6)	26(46.4)	11(19.6)	56(100.0)
	청장년	2(1.0)	10(4.8)	37(17.9)	118(57.0)	40(19.3)	207(100.0)
	노인	3(4.4)	4(5.9)	11(16.2)	38(55.9)	12(17.6)	68(100.0)
전 체	7(2.1)	15(4.5)	64(19.3)	182(55.0)	63(19.0)	331(100.0)	

(5) 도움 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

복지와 관련한 문제 발생 시 도움이 제공하더라도 이용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그 에 대한 가장 큰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49.4%(42명), 스스로 해결 가능함 14.1%(12명), 신뢰할 만한 기관 없음, 도움을 받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음 각 10.6%(9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과 청장년에서 어떤 기관인지 모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노인은 어떤 기관인지 모름과 스스로 해결 가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Ⅲ-12〉 도움 제공 시 이용할 의향이 없는 가장 큰 이유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7	8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1(5.3)	11(57.9)	1(5.3)	0(0.0)	0(0.0)	1(5.3)	4(21.1)	1(5.3)	19(100.0)
	청장년	2(14.6)	24(50.0)	8(16.7)	5(10.4)	1(2.1)	1(2.1)	2(4.2)	0(0.0)	48(100.0)
	노인	1(5.6)	7(38.9)	0(0.0)	7(38.9)	0(0.0)	1(5.6)	0(0.0)	2(11.1)	18(100.0)
전 체	9(10.6)	42(49.4)	9(10.6)	12(14.1)	1(1.2)	3(3.5)	6(7.1)	3(3.5)	85(100.0)	

*1: 신뢰할만한 기관이 없음, 2: 어떤 기관이 있는지 모름, 3: 도움을 받아도 별로 나아지지 않음, 4: 스스로 해결 가능함, 5: 친구선배 등 주변이 도와줄 수 있음, 6: 부모형제 등 가족이 도와줄 수 있음, 7: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님, 8: 남에게 알리는 것이 창피함.

(6) 제주지역의 고용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고용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은퇴 대비지원 강화 29.6%(98명),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 있는 근로문화 확산 17.5%(58명),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 해소, 임금체계 개선 각 11.8%(39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에 따른 차별 해소, 청장년이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은퇴 대비지원 강화, 노인이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은퇴 대비지원 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남.

<표Ⅲ-13> 제주지역의 고용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7	8	전 체
아동·청소년	17 (30.4)	6 (10.7)	2 (3.6)	5 (8.9)	5 (8.9)	6 (10.7)	4 (7.1)	11 (19.6)	56 (100.0)
생애 주기	17 (8.2)	17 (8.2)	22 (10.6)	12 (5.8)	29 (14.0)	70 (33.8)	6 (2.9)	34 (16.4)	207 (100.0)
노인	5 (7.4)	7 (10.3)	6 (8.8)	2 (2.9)	5 (7.4)	22 (32.4)	8(11.8)	13 (19.1)	68 (100.0)
전 체	39 (11.8)	30 (9.1)	30 (9.1)	19 (5.7)	39 (11.8)	98 (29.6)	18 (5.4)	58 (17.5)	331 (100.0)

*1: 성별, 인종, 연령 등에 따른 차별해소, 2: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격차 완화, 3: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고용안정성 강화, 4: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용안정망 강화, 5: 임금체계 개선, 6: 실직·은퇴 대비지원 강화, 7: 적절한 노동시간 준수, 8: 일과 일상생활의 균형 있는 근로문화 확산

(7) 제주지역의 소득 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 44.1%(146명),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강화 19.6%(65명),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 소득보장 강화 15.4%(51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는 전생애에서 ‘일자리를 통한 탈 빈곤 지원강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표Ⅲ-14> 제주지역의 소득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전 체
아동·청소년	11(19.6)	20(35.7)	14(25.0)	6(10.7)	1(1.8)	4(7.1)	56(100.0)
생애 주기	22(10.6)	97(46.9)	41(19.8)	29(14.0)	0(0.0)	18(8.7)	207(100.0)
노인	10(14.7)	29(42.6)	10(14.7)	16(23.5)	3(4.4)	0(0.0)	68(100.0)
전 체	43(13.0)	146(44.1)	65(19.6)	51(15.4)	4(1.2)	22(6.6)	331(100.0)

*1: 빈곤층, 차상위 계층 지원강화, 2: 일자리를 통한 탈빈곤 지원강화, 3: 아동수당, 기본소득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소득보장 강화, 4: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의 확대를 통한 노인소득보장 강화, 5: 장애수당 등의 확대를 통한 장애인 소득 보장 강화, 6: 고용·산재보험 등의 확대를 통한 실직자,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강화.

(8) 제주지역의 보건 의료(건강)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보건 의료(건강)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공의

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28.1%(93명), 의료비 부담 완화 24.5%(81명),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17.5%(58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과 노인은 의료비 부담 완화, 청장년은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표Ⅲ-15〉 제주지역의 보건 의료(건강) 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7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17(30.4)	12(21.4)	5(8.9)	2(3.6)	6(10.7)	6(10.7)	8(14.3)	56(100.0)
	청장년	47(10.6)	66(31.9)	44(21.3)	13(6.3)	10(4.8)	11(5.3)	16(7.7)	207(100.0)
	노인	17(25.0)	15(22.1)	9(13.2)	6(8.8)	5(7.4)	4(5.9)	12(17.6)	68(100.0)
전 체	81(24.5)	93(28.1)	58(17.5)	21(6.3)	21(6.3)	21(6.3)	36(10.9)	331(100.0)	

*1: 의료비 부담 완화, 2: 공공의료 확충 및 의료 접근성 강화, 3: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및 서비스 수준 향상, 4: 정신건강 증진사업 확대, 5: 재난·응급 의료체계 강화, 6: 감염병 등 질병예방사업 강화, 7: 국민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예방 사업 확대.

(9) 제주지역의 돌봄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돌봄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24.2%(80명),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20.2%(67명),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19.6%(65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청장년이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노인이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표Ⅲ-16〉 제주지역의 돌봄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17(30.4)	15(26.8)	7(12.5)	5(8.9)	4(7.1)	8(14.3)	56(100.0)
	청장년	38(18.4)	38(18.4)	4(1.9)	29(14.0)	40(19.3)	58(28.0)	207(100.0)
	노인	12(17.6)	7(10.3)	4(5.9)	10(14.7)	21(30.9)	14(20.6)	68(100.0)
전 체	67(20.2)	60(18.1)	15(4.5)	44(13.3)	65(19.6)	80(24.2)	331(100.0)	

*1: 방과 후 학교 등 가족의 아동 돌봄 부담 완화, 2: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3: 장애아동 돌봄 강화, 4: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안내 강화, 5: 노인,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6: 고용안정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

(10) 제주지역의 교육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교육 관련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교육비 부담 완화 28.7%(95명), 무상교육 확대 18.4%(61명), 평생·직업교육 혁신 17.2%(57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과 청장년은 사교육비 부담 완화, 노인은 무상교육 확대와 평생·직업교육 혁신이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표Ⅲ-17〉 제주지역의 교육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국공립 교육기관 강화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부담완화	교사자질 향상과 처우개선	고등 교육의 질 향상	평생· 직업교육 혁신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0(0.0)	10(17.9)	23(41.1)	7(12.5)	13(23.2)	56(100.0)
	청장년	24(11.6)	36(17.4)	58(28.0)	29(14.0)	21(10.1)	207(100.0)
	노인	12(17.6)	15(22.1)	14(20.6)	6(8.8)	6(8.8)	68(100.0)
전 체	36(10.9)	61(18.4)	95(28.7)	42(12.7)	40(12.1)	57(17.2)	331(100.0)

(11)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주택가격 상승 억제 33.5%(111명), 공공주택 공급확대 23.3%(77명), 주차공간 확보 18.7%(62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주차공간 확보, 청장년이 주택가격 상승 억제, 노인이 주택가격 상승 억제와 공공주택 공급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표Ⅲ-18〉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공공주택 공급확대	주택가격 상승억제	집수리 지원강화	주차공간 확보	주거마련 금융자금 지원	공원녹지 조성 및 확충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9(16.1)	17(30.4)	5(8.9)	18(32.1)	5(8.9)	56(100.0)
	청장년	52(25.1)	78(37.7)	12(5.8)	32(15.5)	16(7.7)	207(100.0)
	노인	16(23.5)	16(23.5)	12(17.6)	12(17.6)	3(4.4)	68(100.0)
전 체	77(23.3)	111(33.5)	29(8.8)	62(18.7)	24(7.3)	28(8.5)	331(100.0)

(12) 제주지역의 여가 및 문화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주거생활 및 주거환경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

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24.8%(82명), 문화생활 비용인하 22.7%(75명),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18.4%(61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청장년이 문화생활 비용인하, 노인이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함.

〈표Ⅲ-19〉 제주지역의 여가 및 문화서비스 영역 중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7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18(32.1)	15(26.8)	5(8.9)	7(12.5)	1(1.8)	4(7.1)	6(10.7)	56(100.0)
	청장년	48(23.2)	49(23.7)	13(6.3)	41(19.8)	18(8.7)	4(1.9)	34(16.4)	207(100.0)
	노인	16(23.5)	11(16.2)	1(1.5)	6(8.8)	11(16.2)	2(2.9)	21(30.9)	68(100.0)
전 체	82(24.8)	75(22.7)	19(5.7)	54(16.3)	30(9.1)	10(3.0)	61(18.4)	331(100.0)	

*1: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운영기관 확대, 2: 문화생활 비용인하, 3: 박물관, 도서관 등 문화 프로그램 확대, 4: 문화공연 프로그램 유치, 5: 행정복지센터 중심의 생활프로그램 확대, 6: 프로그램 전문강사 확보, 7: 제주지역의 특성에 맞는 문화프로그램 개발

(13) 제주지역의 환경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환경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 40.8%(135명), 자연친화적인 개발정책 수립 15.7%(52명), 환경기초시설 보강 11.2%(37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전생애에서 쓰레기를 위한 대책 강화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함.

〈표Ⅲ-20〉 제주지역의 환경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7	8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21(37.5)	3(5.4)	2(3.6)	7(12.5)	5(8.9)	4(7.1)	5(8.9)	9(16.1)	56(100.0)
	청장년	81(39.1)	35(16.9)	9(4.3)	16(7.7)	29(14.0)	11(5.3)	4(1.9)	22(10.6)	207(100.0)
	노인	33(48.5)	14(20.6)	5(7.4)	4(5.9)	3(4.4)	6(8.8)	2(2.9)	1(1.5)	68(100.0)
전 체	135(40.8)	52(15.7)	16(4.8)	27(8.2)	37(11.2)	21(6.3)	11(3.3)	32(9.7)	331(100.0)	

*1: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 강화, 2: 자연친화적인 개발정책 수립, 3: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차량등록제한, 4: 토양 및 바다 오염문제 해결, 5: 환경기초시설 보강, 6: 지하수 고갈 및 오염 해결, 7: 미세먼지 저감 정책, 8: 꽃자왈, 오름 등 산림생태계 복원.

(14) 제주지역의 안전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

제주지역의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21.5%(71명), 안전교육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개선 20.2%(67명),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18.7%(62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과 외국인 범죄 등 범죄예방 대책 강화, 청장년이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노인이 외국인 범죄 등 범죄예방 대책 강화를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함.

〈표Ⅲ-21〉 제주지역의 안전관련 가장 필요한 정책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8(14.3)	10(17.9)	9(16.1)	3(5.4)	13(23.2)	13(23.2)	56(100.0)
	청장년	36(17.4)	48(23.2)	45(21.7)	12(5.8)	36(17.4)	30(14.5)	207(100.0)
	노인	13(19.1)	13(19.1)	13(19.1)	2(2.9)	13(19.1)	14(20.6)	68(100.0)
전 체	57(17.2)	71(21.5)	67(20.2)	17(5.1)	62(18.7)	57(17.2)	331(100.0)	

*1: 기상이변 및 자연재해 대책 강화, 2: 도민과 관광객 운전의식 개선 및 강화 대책마련, 3: 안전교육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개선, 4: 재난피해자와 현장 활동인원에 대한 심리지원 체계 강화, 5: 재난발생 시 신속대응 및 수습체계 마련, 6: 외국인 범죄 등 범죄예방 대책 강화.

(15)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24.5%(81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안전한 환경 조성 각 19.3%(64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과 청장년에서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노인에서는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과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Ⅲ-22〉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7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11(19.6)	12(21.4)	14(25.0)	7(12.5)	2(3.6)	4(7.1)	6(10.7)	56(100.0)
	청장년	37(17.9)	30(14.5)	51(24.6)	17(8.2)	20(9.7)	7(3.4)	45(21.7)	207(100.0)
	노인	16(23.5)	7(10.3)	16(23.5)	8(11.8)	5(7.4)	3(4.4)	13(19.1)	68(100.0)
전 체	64(19.3)	49(14.8)	81(24.5)	32(9.7)	27(8.2)	14(4.2)	64(19.3)	331(100.0)	

*1: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 2: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화, 3: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 4: 방과 후 돌봄 강화, 5: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6: 상담서비스 강화, 7: 안전한 환경 조성.

(16) 청장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청장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장년 일자리 확대 49.8%(165명), 다양한 가족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13.0%(43명), 주거 지원 10.9%(36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전생에서 청장년 일자리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Ⅲ-23〉 청장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7	8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22(39.3)	1(1.8)	10(17.9)	8(14.3)	3(5.4)	3(5.4)	1(1.8)	8(14.3)	56(100.0)
	청장년	103(49.8)	15(7.2)	20(9.7)	29(14.0)	9(4.3)	9(4.3)	15(7.2)	7(3.4)	207(100.0)
	노인	40(58.8)	6(8.8)	6(8.8)	6(8.8)	1(1.5)	3(4.4)	4(5.9)	2(2.9)	68(100.0)
전 체	165(49.8)	22(6.6)	36(10.9)	43(13.0)	13(3.9)	15(4.5)	20(6.0)	17(5.1)	331(100.0)	

*1: 청장년 일자리 확대, 2: 청장년의 쉽고 교류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마련, 3: 주거 지원, 4: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5: 청장년 활동 단체 지원, 6: 예비 창업 지원 공간 마련, 7: 교육·훈련 지원 확대, 8: 문화·여가생활 지원 확대

(17)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25.4%(84명),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19.3%(64명),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18.1%(60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과 청장년이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노인은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함.

〈표Ⅲ-24〉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7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16(28.6)	12(21.4)	3(5.4)	11(19.6)	5(8.9)	6(10.7)	3(5.4)	56(100.0)
	청장년	56(27.1)	34(16.4)	21(10.1)	40(19.3)	16(7.7)	21(10.1)	19(9.2)	207(100.0)
	노인	12(17.6)	14(20.6)	9(13.2)	13(19.1)	5(7.4)	10(14.7)	5(7.4)	68(100.0)
전 체	84(25.4)	60(18.1)	33(10.0)	64(19.3)	26(7.9)	37(11.2)	27(8.2)	331(100.0)	

*1: 은퇴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2: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3: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4: 치매, 독거, 학대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5: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6: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7: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4)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1)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정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 읍·면·동 등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지 조사한 결과, 보통 38.4%(127명), 모른다 28.7%(95명), 조금 안다 23.0%(76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모른다, 청장년과 노인은 보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Ⅲ-25〉 지자체 포함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9(16.1)	23(41.1)	13(23.2)	10(17.9)	1(1.8)	56(100.0)
	청장년	16(7.7)	58(28.0)	81(39.1)	48(23.2)	4(1.9)	207(100.0)
	노인	1(1.5)	14(20.6)	33(48.5)	18(26.5)	2(2.9)	68(100.0)
전 체	26(7.9)	95(28.7)	127(38.4)	76(23.0)	7(2.1)	331(100.0)	

(2)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역할 인지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인지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금 안다 33.5%(111명), 보통 32.0%(106명), 모른다 24.8%(82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는 아동청소년이 모른다, 청장년과 노인이 조금 안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Ⅲ-26〉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역할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0(17.9)	25(44.6)	13(23.2)	8(14.3)	0(0.0)	56(100.0)
	청장년	10(4.8)	45(21.7)	71(34.3)	73(35.3)	8(3.9)	207(100.0)
	노인	2(2.9)	12(17.6)	22(32.4)	30(44.1)	2(2.9)	68(100.0)
전 체	22(6.6)	82(24.8)	106(32.0)	111(33.5)	10(3.0)	331(100.0)	

(3) 주민에게 제공되는 사회복지 혜택의 충분성

사회복지 혜택이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55.6%(184

명), 그렇지 않다 23.0%(76명), 그렇다 16.0%(53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전생애에서 보통이라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Ⅲ-27〉 사회복지 혜택이 주민에게 충분히 제공되는 지에 대한 생각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1.8)	4(7.1)	35(62.5)	15(26.8)	1(1.8)	56(100.0)
	청장년	8(3.9)	59(28.5)	103(49.8)	33(15.9)	4(1.9)	207(100.0)
	노인	1(1.5)	13(19.1)	46(67.6)	5(7.4)	3(4.4)	68(100.0)
전 체	10(3.0)	76(23.0)	184(55.6)	53(16.0)	8(2.4)	331(100.0)	

(4)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음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할 때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보통이다 36.9%(122명), 그렇지 않다 32.0%(106명), 그렇다 20.8%(69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과 노인이 보통이다, 청장년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Ⅲ-28〉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음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5(8.9)	10(17.9)	29(51.8)	12(21.4)	0(0.0)	56(100.0)
	청장년	20(9.7)	78(37.7)	71(34.3)	37(17.9)	1(0.5)	207(100.0)
	노인	7(10.3)	18(26.5)	22(32.4)	20(29.4)	1(1.5)	68(100.0)
전 체	32(9.7)	106(32.0)	122(36.9)	69(20.8)	2(0.6)	331(100.0)	

(5)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에 따른 만족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용경험 없음 51.0%(674명)이 가장 높게 나왔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 중에서는 보통 24.1%(318명), 약간 만족 13.2%(174명), 매우 만족 6.0%(79명) 순으로 응답함. 전반적으로 이용경험 없음이 비율이 높고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대부분 보통으로 응답했으며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음.

〈표Ⅲ-29〉 공공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이용경험 없음	전 체
행정복지센터	5(1.5)	20(6.0)	102(30.8)	54(16.3)	21(6.3)	129(39.0)	331(100.0)
시청	7(2.1)	15(4.5)	80(24.2)	28(8.5)	14(4.2)	187(56.5)	331(100.0)
도청	5(1.5)	15(5.1)	59(17.8)	22(6.6)	11(3.3)	217(65.6)	331(100.0)
보건소 ⁶⁾	3(0.9)	7(2.1)	77(23.3)	70(21.1)	33(10.0)	141(42.6)	331(100.0)
전 체	20(1.5)	57(4.3)	318(24.1)	174(13.2)	79(6.0)	674(51.0)	1,322(100.0)

(6) 공공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34.3%(113명), 사회복지 예산부족 17.9%(59명), 사회복지 인력부족 14.9%(49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전생애에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표Ⅲ-30〉 공공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전 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4(25.9)	4(7.4)	2(3.7)	8(14.8)	20(37.0)	6(11.1)	54(100.0)
	청장년	31(15.0)	41(19.8)	28(13.5)	13(6.3)	71(34.3)	23(11.1)	207(100.0)
	노인	14(20.6)	4(5.9)	8(11.8)	13(19.1)	22(32.4)	7(10.3)	68(100.0)
전 체	59(17.9)	49(14.9)	38(11.6)	34(10.3)	113(34.3)	36(10.9)	329(100.0)	

*1: 사회복지 예산 부족, 2: 사회복지인력부족, 3: 관련담당자 전문성 부족, 4: 관련담당자의 전문성 부족, 5: 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부족, 6: 지원기간 관 정보공유부족으로 인한 서류과다제출

5)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1)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인지도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모른다 32.3%(107명), 보통 29.3%(97명), 조금 안다 26.3%(87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모른다, 청장년이 보통, 노인이 조금 안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6)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고혈압·당뇨센터 등

〈표Ⅲ-31〉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지도

(단위 : 명, %)

구 분	전혀 모른다	모른다	보통	조금 안다	매우 잘 안다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9(16.1)	28(50.0)	14(25.0)	5(8.9)	0(0.0)	56(100.0)
	청장년	15(7.2)	58(28.0)	67(32.4)	57(27.5)	10(4.8)	207(100.0)
	노인	2(2.9)	21(30.9)	16(23.5)	25(36.8)	4(5.9)	68(100.0)
전 체	26(7.9)	107(32.3)	97(29.3)	87(26.3)	14(4.2)	331(100.0)	

(2)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간기관 방문여부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민간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없다 72.2%(239명), 있다 27.8%(92명)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에서 없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Ⅲ-32〉 복지서비스 이용을 위한 민간기관 방문여부

(단위 : 명, %)

구 분	있다	없다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10(17.9)	46(82.1)	56(100.0)
	청장년	52(25.1)	155(74.9)	207(100.0)
	노인	30(44.1)	38(55.9)	68(100.0)
전 체	92(27.8)	239(72.2)	331(100.0)	

(3)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음

사회복지 혜택이 필요할 때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다 40.8%(135명), 보통이다 27.5%(91명), 전혀 그렇지 않다 15.1%(50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 보통이다, 청장년과 노인이 그렇지 않다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Ⅲ-33〉 사회복지 혜택 필요 시 민간기관의 도움을 받음

(단위 : 명,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7(12.9)	17(30.4)	25(44.6)	6(10.7)	1(1.8)	56(100.0)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청장년	32(15.5)	95(45.9)	49(23.7)	28(13.5)	3(1.4)	207(100.0)
노인	11(16.2)	23(33.8)	17(25.0)	14(20.6)	3(4.4)	68(100.0)
전 체	50(15.1)	135(40.8)	91(27.5)	48(14.5)	7(2.1)	331(100.0)

(4)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를 기관별로 조사한 결과, 이용경험이 없다는 비율이 매우 높음. 이용경험이 있는 대상자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음.

〈표Ⅲ-34〉 민간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

(단위 : 명, %)

구 분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이용경험 없음	전 체
지역아동센터	1(0.9)	9(2.7)	25(7.6)	10(3.0)	7(2.1)	279(84.3)	331(100.0)
청소년쉼터	0(0.0)	4(1.2)	22(6.6)	12(3.6)	5(1.5)	288(87.0)	331(100.0)
청소년수련관·청 소년문화의집	0(0.0)	8(2.4)	35(10.6)	35(10.6)	22(6.6)	231(69.8)	331(100.0)
청년재단 청년맞춤제작소	0(0.0)	3(0.9)	17(5.1)	9(2.7)	3(0.9)	299(90.3)	331(100.0)
종합사회복지관	0(0.0)	3(0.9)	34(10.3)	31(9.4)	11(3.3)	252(76.1)	331(100.0)
장애인복지관	0(0.0)	2(0.6)	23(6.9)	25(7.6)	5(1.5)	276(83.4)	331(100.0)
지역자활센터	0(0.0)	1(0.3)	22(6.6)	9(2.7)	3(0.9)	296(89.4)	331(100.0)
일자리지원센터	3(0.9)	4(1.2)	31(9.4)	20(6.0)	10(3.0)	263(79.5)	331(100.0)
노인복지관	1(0.3)	1(0.3)	25(7.6)	21(6.3)	22(6.6)	261(78.9)	331(100.0)
노인의료 복지시설	1(0.3)	3(0.9)	22(6.6)	28(8.5)	6(1.8)	271(81.9)	331(100.0)
재가노인 복지시설	0(0.0)	5(1.5)	15(4.5)	22(6.6)	7(2.1)	282(85.2)	331(100.0)
노인 일자리기관	2(0.6)	4(1.2)	23(6.9)	28(8.5)	27(8.2)	247(74.6)	331(100.0)
경로당	0(0.0)	3(0.9)	24(7.3)	21(6.3)	9(2.7)	274(82.8)	331(100.0)
노인대학, 노인교실	1(0.3)	2(0.6)	21(6.3)	13(3.9)	6(1.8)	288(87.0)	331(100.0)
기타	1(0.5)	0(0.0)	7(3.7)	1(0.5)	2(1.1)	178(94.2)	189(100.0)

(5) 민간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민간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50.6%(167명), 사회복지 인력의 부족 13.0%(43명), 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12.7%(42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전생에서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맞춤형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Ⅲ-35> 민간기관 복지서비스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명, %)

구 분	맞춤형 복지 프로그램 부족	시설의 낙후성	경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부족	사회 복지 인력의 부족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부족	복지시설의 낮은 접근성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31(55.4)	5(8.9)	3(5.4)	10(17.9)	3(5.4)	56(100.0)
	청장년	104(50.5)	25(12.1)	17(8.3)	28(13.6)	7(3.4)	206(100.0)
	노인	32(47.1)	6(8.8)	9(13.2)	5(7.4)	3(4.4)	68(100.0)
전 체	167(50.6)	36(10.9)	29(8.8)	43(13.0)	13(3.9)	42(12.7)	330(100.0)

7) 향후 사회보장 정책의 방향

(1)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8.3%(93명), 복지전담 인력의 전문성 확보 16.4%(54명),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14.3%(47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과 노인이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청장년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이라고 응답함.

<표Ⅲ-36> 바람직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선사항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7	8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21(38.2)	2(3.6)	9(16.4)	6(10.9)	7(12.7)	1(1.8)	4(7.3)	5(9.1)	55(100.0)
	청장년	44(21.4)	44(21.4)	27(13.1)	29(14.1)	19(9.2)	5(2.4)	12(5.8)	26(12.6)	206(100.0)
	노인	28(41.2)	8(11.8)	11(16.2)	6(8.8)	5(7.4)	0(0.0)	4(5.9)	6(8.8)	68(100.0)
전 체	93(28.3)	54(16.4)	47(14.3)	41(12.5)	31(9.4)	6(1.8)	20(6.1)	37(11.2)	329(100.0)	

*1: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 복지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3: 복지예산의 투명성 확보와 낭비 제거, 4: 지역주민의 정기적인 복지 수요 파악, 5: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연계협력, 6: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강화, 7: 민간기관 및 시설의 확대, 8: 사회복지예산 확대.

(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21.5%(71명), 지역 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20.2%(67명),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이용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18.7%(62명) 순으로 응답함. 생애주기별로 보면, 아동·청소년이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이용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와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보편적 서비스 강화, 청장년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노인이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강화를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한다고 응답하였음.

<표Ⅲ-37>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 중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단위 : 명, %)

구 분	1	2	3	4	5	6	전 체	
생애 주기	아동·청소년	8(14.3)	10(17.9)	9(16.1)	3(5.4)	13(23.2)	13(23.2)	56(100.0)
	청장년	36(17.4)	48(23.2)	45(21.7)	12(5.8)	36(17.4)	30(14.5)	207(100.0)
	노인	13(19.1)	13(19.1)	13(19.1)	2(2.9)	13(19.1)	14(20.6)	68(100.0)
전 체	57(17.2)	71(21.5)	67(20.2)	17(5.1)	62(18.7)	57(17.2)	331(100.0)	

*1: 누구나 충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2: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3: 지역 간의 사회복지 서비스 격차 해소, 4: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증진, 5: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이용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6: 기본소득제 도입 등 보편적 복지서비스 강화.

2.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결과

1) 조사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를 위하여 청소년, 청년, 장년, 노인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7명)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을 실시함.

〈표Ⅲ-38〉 초점집단면접조사 참여자 특성

구분	성별	소속	구분	성별	소속
사례1	여	청소년관련기관	사례5	남	노인관련기관
사례2	여	노인관련기관	사례6	남	장년관련기관
사례3	여	장애인관련기관	사례7	여	청년관련기관
사례4	여	지역사회복지관			

면접조사 내용은 제주도에서 사회보장이 가장 잘 되고 있는 생애주기, 개입이 시급한 생애주기,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분야별 가장 중요한 문제와 해결방안 등으로 구성하였고 자유롭게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함.

2)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분석 결과⁷⁾

전문가 초점집단면접 결과 여러 생애주기 중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생애주기와 개입이 필요한 생애주기를 파악할 수 있었음. 또한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분야별로 중요한 문제와 필요한 정책을 도출할 수 있었음.

(1)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생애주기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는 생애주기로는 아동·청소년, 특히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잘 되고 있다는 의견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장정책이 잘 이루어졌다는 의견이 있었음.

○아동·청소년의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아동과 관련하여 아동수당, 아이돌보미 사업, 수놓음 육아나눔터(제주특화) 등이 실시되고 있고 지역사회보장계획 내에도 아동에 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 있음.

○노인의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정책들이 상당히 많음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했음.

-정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에게 중복되어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대안도 마련이 되어야 함이 제기됨.

-한정된 예산에서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사회보장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이 필요함.

7) 각 주제에 대한 사례는 추후 발간되는 최종보고서에 담길 예정입니다.

(2) 개입이 필요한 생애주기

개입이 시급하게 필요한 생애주기에서는 청장년에 대한 사회보장이 필요함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였고, 노인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한 의견도 있었음.

○청장년 정책이 필요함

- 장년에 대한 정책이 부족함이 이야기되었음.
- 청장년은 생애주기상 가운데에 위치한 세대(깁세대)이므로 가정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는데도 중심이 되어 있음.
- 주로 일자리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이것이 실효성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한 맥락으로 경력개발과 구직활동 중 안정된 생활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함.

○노인 정책이 필요함

- 노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져 있으면 아래 세대인 청장년이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일 자리에만 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삶을 확장할 수 있을 것임.

(3) 생애주기별 중요한 문제와 해결방안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생애주기별 중요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었음. 각 생애주기별로 특정된 문제가 제시되기도 했지만, 전 생애주기에 걸쳐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이 이야기되었음.

○아동·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

- 아동·청소년에게 중요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가정 내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아동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사회보장이 펼쳐져야 함.

○청장년에게 중요한 문제

- 청장년에게 중요한 문제로는 1인 가구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되었고 새로운 직업을 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점이 제기되었음.
- 청장년이 실업상태일 때 단계별로 지원하는 촘촘한 사회보장이 필요함.

○노인에게 중요한 문제

- 노인과 관련한 범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고 노인들이 한 곳에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보가 정리되고 노인의 어려움을 들여다볼 수 있는 노인전문상담센터가 필요함.
-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기대수명도 연장되고 있어 연령별로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경로당이 필요함.

○생애주기와 관계없이 나아가야 할 방향

- 생애주기별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각각 나누어 이야기가 되기도 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보장정책들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점임.
- 생애주기별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정리하고 많은 도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필요함.

3.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에 대한 SWOT분석

○제주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복지공급자원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제주시·서귀포시 지역주민 설문조사 및 FGI결과와 기존에 조사된 제주시·서귀포시 복지자원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생애주기와 사회보장자원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요인에 대한 SWOT 분석을 실시함.

<표Ⅲ-39>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에 대한 SWOT분석

강점(Strengths)	약점(Weakne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영역 보육료 지원 ✓ 아동관련 돌봄 센터 보유 (수놓음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 아동·청소년, 노인 서비스연계가 용이 ✓ 청·장년 취업 예산 투입이 높음 (자기계발비, 취업 후 인건비지원, 더큰내일센터 등) ✓ 내부역량이 강함(제주특별자치도 권한) ✓ 인구대비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비율 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에산이 편중(아동·청소년, 노인) ✓ 지역적 특색으로 인한 편중된 직업군 ✓ 노인정책 공급과 수요 불일치 ✓ 편중된 직업군으로 인한 저출산 ✓ 청장년층 기준선 미흡으로 연계 어려움 ✓ 복지서비스 중복 및 누락, 사각지대 발생 ✓ 복지정책 정보공유 미흡 ✓ 서비스등록 자격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 복지시설이 편중(노인)으로 이용 어려움 ✓ 통합적 복지시스템의 부재
기회(Opportunities)	위협(Threa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창업/청년창업우선지원사업 (취업희망 프로젝트,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보금자리마련 등) ✓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기회마련 ✓ 지역적 특화 서비스 창출 가능성 ✓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서비스 조례 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천재지변)로 인한 청년고용을 낮음 ✓ 청장년 높은 이혼율 ✓ 빈곤 세대 간 전이 ✓ 중장년 고용시장 열악으로 인한 경력단절 ✓ 기본소득 최하위(평균임금) ✓ 생활임금 및 주거비용 최상위 ✓ 1인 가구 증가로 사회문제 발생 (고독사, 알콜, 우울, 자살 등) ✓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

○SWOT 분석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음.

-첫째, 제주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강점요인은 아동영역 보육료지원, 아동관련 돌봄 센터 보유(수놓음육아나눔터, 아이돌봄서비스 등), 아동·청소년, 노인 서비스연계가 용이, 청장년 취업 예산 투입이 높음(자기계발비, 취업후 인건비지원, 더큰내일센터 등), 내부역량이 강함(제주특별자치도 권한), 인구대비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비율임.

-둘째, 제주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약점요인은 복지예산이 편중(아동·청소년, 노인), 지역적 특색으로 인한 편중된 직업군, 노인정책 공급과 수요 불일치, 편중된 직업군으로 인한 저출산, 청장년층 기준선 미흡으로 연계 어려움, 복지서비스 중복 및 누락/사각지대 발생, 복지정책 정보공유 미흡, 서비스등록 자격 제한으로 인한 어려움, 복지시설이 편중(노인)으로 이용 어려움, 통합적 복지시스템의 부재임.

-셋째, 제주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기회요인은 취.창업/청년창업우선지원사업(취업희망프로젝트, 재형저축(근로자재산형성저축), 보금자리 마련 등),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기회마련, 지역적 특화 서비스 창출 가능성,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서비스 조례 제정임.

-넷째, 제주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위협요인은 코로나(천재지변)로 인한 청년고용을 낮춤, 청·장년 높은 이혼율, 빈곤 세대 간 전이, 중장년 고용시장 열악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본소득 최하위(평균임금), 생활임금 및 주거비용 최상위, 1인가구증가로 사회문제 발생(고독사, 알콜, 우울, 자살),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임.

○이에 본 연구에서의 최종 결론과 제언을 도출하기 위해 SWOT 분석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분석결과를 토대로 향후방안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함.

-첫째, 강점요인을 살려 기회요인을 활용한 전략으로 생애주기별 사회복지 서비스연계가 용이한 점을 살려 중앙정부와의 관계개선을 통한 기회를 마련하고 특히 우리 지역에 맞는 지역적 특화 서비스 창출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둘째, 제주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약점요인을 줄여 기회요인을 활용한 전략으로 노인정책 공급과 수요 불일치로 인한 복지서비스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해소를 위해 복지정책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통합 복지시스템 구축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서비스 조례 제정을 고려해야 함.

-셋째, 제주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강점 요인을 살리면서 위협 요인을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중장년 고용시장 열악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본소득 최하위(평균임금), 생활임금 및 주거비용 최상위, 지역의 노인인구 비율 증가로 인한 발생하는 사회적인 위협 등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으로 청장년 취업 예산 투입(자기계발비, 취업 후 인건비지원, 더큰내일센터 등), 지역적 특화서비스 등을 활용한 생애주기별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임.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의 약점 요인을 줄이면서 위협요인을 최소화 시키는 전략으로 생활임금 및 주거비용 최상위, 1인가구증가로 인한 사회문제(고독사, 알콜, 우울,

자살 등)가 발생하는 위협을 줄이기 위해서는 복지정책 정보공유 활성화 및 통합 복지시스템의 구축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토 론 문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활동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제언



김은영 소장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활동 및 자립지원을 위한 제언

김은영 소장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 이동형

아동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인 동시에 현재의 주인공이다.

인구가 감소하며 제주의 아동청소년의 인구수도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이다.

감소현상에 따른 아동청소년정책 환경의 변화를 활동, 보호, 복지, 교육 등 다양하게 수렴하여 불평등과 차별을 두지 않고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지지하고 지원하는 제주아동청소년 친화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으로 역량강화 활동시간이 부족하여 참여, 문화, 개인의 행복설계 등, 창의적 시도가 결여되어 행복지수가 낮을 뿐 아니라, 부모와 가족의 따뜻한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균형있게 성장해야 할 권리를 가정의 다양한 문제로 학업중단, 가출 등을 경험하며 심리적, 경제적 문제를 겪으며 건강한 청년·성인기로의 이행과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에 문제가 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애주기를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으로 나누어 생애주기별 현황과 약, 생애주기에 의한 복지사업, 재정분석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향후 방안 제시 조사연구를 고무적으로 높이 사며, 현장의 소리와 방안을 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아동·청소년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사회보장수준, 지원 강화가 필요한 것,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 등 내용과 현황 파악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접근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현장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활동실태와 활성화 방안 및 제주지역 특성의 학교밖·가정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제언 하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 활동실태와 활성화 방안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확충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모두에서 가장 높은 응답을 하였다.

이에, 아동청소년이 문화,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도내 청소년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도내 수련시설은 2019년 52개소로 제주시 26개소, 서귀포시 26개소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하지만 생애주기별 조사에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위해 기관 방문한 적이 있는지의 대한 조사의 응답에서 '없다'의 응답은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은 82.1%, 청장년 74.9%, 노인 55.9%로 나타났으며, 기관의 복지서비스 이용만족도에 대한 기관별 조사에서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 청장년, 노인 331명 응답자 중 청소년 수련관, 문화의집 이용경험이 '없음'의 응답이 231명인 69.8%로 높게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2018 청소년활동 실태를 살펴보면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의 응답은 설문자 935명 중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 32%, ‘재미있을 것 같아서’ 20.8%이며, “청소년활동 참여가 어려운 이유”의 응답은 ‘시간이 없어서’ 32.3%, ‘어떤 활동인지 몰라서’ 24.6%, “청소년활동에 참여하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의 응답은 ‘다양한 경험’ 40.8%, ‘진로나 적성 발견’이 16.9%, 그리고 “청소년활동 기관을 찾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기관홍보가 안되어서’ 69%, ‘평범하지 않은 친구들이 가는 곳인 것 같아서’ 12.4%로 나타났으며, 청소년활동 관련 시설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모름’이 48.3%, ‘이름만 들어봄’이 37.2%, ‘잘 알고 있음’은 14.5%로 조사되었다. 청소년수련시설의 인지도에 대해, 청소년수련원의 인지도가 31.6%로 가장 높았으며, 청소년수련관의 인지도는 20%, 청소년문화의집은 10%로 인지도가 가장 낮게 조사결과가 나왔다. 청소년이 참여의 선호도가 높은 활동은 스포츠활동, 야영활동, 직업활동, 예술체험활동, 등으로 나타났으며, 청소년활동 참여에 따른 삶의 만족도도 49%를 나타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 참여로 활동역량의 관계의 조사에서 개인시민성은 응답자 93%, 협동의 경우 87%, 관계형성 81%, 진로설계는 74.3%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지식위주 입시제도의 적극적인 개선과 체험 및 활동중심의 교육개혁에도 불구하고 체험 활동이나 청소년활동은 교육적 가치가 인정됨에도 그 중요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 교육과정으로는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청소년 역량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것이 역부족이므로 학교 밖의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할 필요성이 있다. 학교의 공교육과정과 학교밖 활동의 연계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역량강화 개발활동의 건전한 환경을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① 시·도·기관의 정보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 복지, 보호시설 이용에 따른 생애주기별 응답자나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청소년활동 실태조사에 비추어보면 정보제공의 영향력이 매우 미흡함을 볼 수 있다. 시·도·기관의 정보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으로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활동과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참여권을 가진 청소년이 다양한 문화, 체육, 활동을 통해 건강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②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체계개편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지도하는 지도자의 전문적 역량의 중요함을 실감하면서 청소년수련시설의 직영

을 민간위탁 운영으로 활성화 되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를 복지시설과 준하여 책정되어야 시대 흐름에 맞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이 질적으로 수행되며, 고스란히 청소년들에게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한 청소년지도사의 인건비 개선으로 지도사의 권익보호와 일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2. 제주지역 특성의 학교밖·가정밖 청소년의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이 잘되고 있는 생애주기로 아동청소년, 특히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정책이 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동수당, 아이돌보미 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특화사업인 수놓음육아나눔터 등 육아지원 사회보장제도들이 있다. 그리고 제주시 보장계획에 아동은 9개 영역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사회보장이 잘 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는 저출산 시대의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한다. 아동에 대한 사회보장만큼 내일을 짊어질 청소년에 대한 사회보장도 절실히 필요함을 요구하며, 인구감소 시대에 청소년 한명 한명의 자원을 차별없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할 의무가 우리 사회의 모든 어른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은 보호의 법정 연령 만18세를 초과한 시점부터 홀로 살아내기 위한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자립의 부담감으로 건강한 청년기의 이행을 실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이 청년기의 발달과제를 수행하지 못하여 NEET청소년이 증가하며, 또 다른 사회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로 가정을 떠나 시설에서 생활하거나 또는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리의 학교밖·가정밖청소년들의 자립지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① 청소년복지시설의 자립지원도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지원과 동일한 지원 필요

시설을 이용, 퇴소하는 청소년들에게 아동양육시설의 자립지원에 준하는 일련의 재원을 지원해 준다면 거주지의 안정과 직업교육과 취업활동을 통해 사회복귀 할 수 있을 것이다. 보호만 받던 사회 초년생이 본인의 힘으로 생활을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어느 기간 동안은 공공재원 성격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나라의 내일의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 이들의 인권, 기본권 보장이 가능하도록 보장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바람직한 청년·성인기 이행을 지원한다면 사회적 비용의 감소와 더불어 잠재의 인력을 양성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제주에서는 2020년 5월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 조례가 17개 시도 중 전국 최초로 도의회 김경미의원의 발의로 제정되어 아동양육시설의 아동에게 준하는 자립지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소년의 자립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다. 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이상 24세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폭력·학대·방임·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3.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각종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3.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
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 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대학 장학금

2. 주거 정착금 500만원

3. 직업훈련비

4. 의료비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정착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주지역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가정밖청소년 자립지원 마련

○ 가정밖청소년 : 제주는 이혼율이 전국 1위로 부부간의 불화, 가정폭력, 부모의 이혼, 자녀의 방임, 정서적학대, 신체 폭행 등의 가정문제로 인해 심리적 불안과 우울, 미래에 대한 막연함, 자존감 결여로 의지 상실과 성취동기 취약한 상태로 가정을 벗어나 거리배회 청소년, 가출청소년, 비행청소년에 노출되는 환경임. 2016년 한 해 340여 명의 청소년이 가출하고 있으며, 이들은 뉴스에 오르내리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가해자가

되기도 함(제민일보 2017.01.12) 제주지방경찰청의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가출청소년은 연평균 342명으로 집계되었고,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제민일보 2017.01.10)

- 학교밖청소년 : 제주지역은 고교진학비평준화 지역으로 제주시내 8개교의 인문고등학교에 진학하려면 연합고사를 보고 합격한 학생만 진학할 수 있는 불공정한 제도로 시외고교나 특성화고에 진학한 1년일 때, 학업중단율이 가장 높음. 학교가 제공하는 획일적인 교과과정을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학교교육의 특성을 고려하면 학업성적이 낮은 특성화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기도 어려울뿐더러 미래에 대한 희망도 어두워 그들의 욕구가 충족되기 어려운 실정임. 학교밖청소년의 수는 2014년 483명, 2015년 425명, 2016년 469명(2017, 제주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자료). 해마다 400명 이상의 학업중단청소년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학업중단율을 낮추기 위해 학교를 방통고(방통고는 2주 1회 학교 출석하는 구조로 방통고학생은 학교밖 청소년이나 다름없음)로 전학하는 청소년(약 500명)을 더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남.

탈가정, 탈학교 후 각자의 길 위에 선 청소년은 당장 위기상황을 벗어난다 해도 다시 피해상황에 놓여 질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각자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났지만 막상 먹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 기본적인 생활권이 보장되어있지 않은 상태로 주거와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피해상황으로 재유입할 가능성이 발생한다. 위기상황에 놓인 기간은 일반적으로 청소년이 당연하게 누리고, 보호받아야 하는 외부의 자원과 단절된 시간이다. 이 시기에 그들은 자립을 위한 역량을 키우지 못했고 수동적 존재로 살게 된다. 이들이 그 상황을 벗어나 곧바로 사회로 진입한다면 능동적으로 움직여야하는 사회에서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자신의 능력 부재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신종 범죄의 유형은 다양화되고,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되는 유혹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익숙한 상황으로 다시 복귀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지속적으로 자신의 삶의 변화를 피하고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 구축이 매우 필요하다.

③ 청소년인턴활동센터 구축의 필요성

학교밖·가정밖청소년은 자립하고 싶지만 그들이 마주한 현실은 그리 쉽지 않다. 거리는 청소년들에게 결코 안전하지 않은 위험한 장소이기도 하다.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 동의 없이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어렵다. 청소년 경제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위기 상황을 겪는 청소년들은 자립을 위해 학력이 필요하고, 하고 싶은 것을 찾을 권리가 있다. 또한, 돈이 없을 때 일 할 수 있는 안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학력취득과 대안교육, 그리고 안전한 일자리와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복합적 지원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청소년에게 자립은 학력취득과 경제적 자립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것은 그들이 원할 때 안정적인 모습으로 사회로 재진입하고 통합될 가능성을 높인다. 서울의 '관악

늘푸른교육센터'(구. 새날이오면)는 2008년부터 학교밖·가정밖청소년의 자활을 도우며, 10대 여성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인턴쉽센터를 운영하다가 '서울시 위기 10대여성청소년 지원조례'를 통해 2017년 관악늘푸른교육센터를 개소하여 학력취득과 청소년인턴활동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청소년 복지의 패러다임이 소극적 현금지원에서 적극적인 자립정책 중심으로 변화하는 중이며, 가출 및 노숙청소년법, 위탁보호자립지원법 등의 법령 하에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배주미 외, 2011). 가출청소년들이 24개월간 거주하면서 다양한 자립생활기술을 배우도록 하는 전환생활프로젝트, 저소득 학업중단청소년들에게 주택건설을 통해 대안교육 및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유스빌드가 있다. 우리나라도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 초기 비용의 지원에서 벗어나 더욱 적극적인 자립지원을 통해 청소년의 생애주기에서 청년·성인기의 전환을 긍정적인 삶의 방향으로 사회의 주인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역의 보장제도가 든든하게 뒷받침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라유미(2015). 아동양육시설의 자립프로그램 현황과 발전방안.

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임하린(2018).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보고서.

배주미 외(2011). 취약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현장전문가 델파이 조사, 한국청소년연구22(3).

토 론 문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향후 과제

- 청장년기를 중심으로 -



강수영 소장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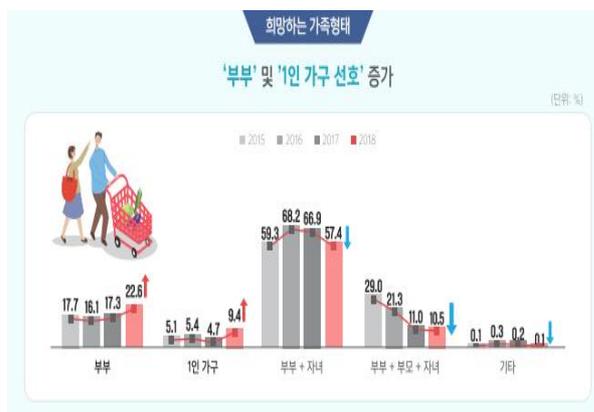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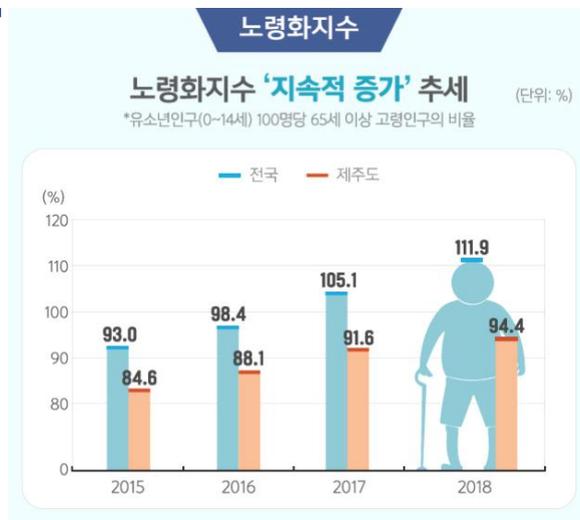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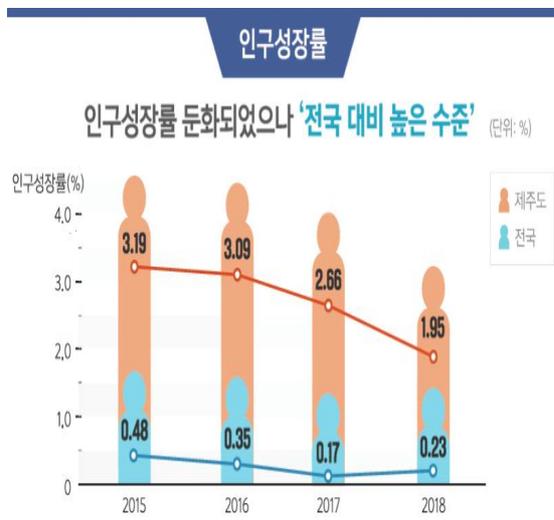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향후 과제

- 청장년기를 중심으로 -

강 수 영 소장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 인구추이에 맞춘 사회보장제도 기준의 변화 필요



< 2019 제주사회조사 및 사회조사지표. 제주특별자치도 >

2019 제주사회조사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성장률은 둔화되었으나 전국대비 높은 수준이며 특히 노령화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1인 및 2인

가구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고령사회, 다문화, 1인가구, 부부가구 등 다양해지고 있는 가족, 가구 형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해 통계청은 장래가구특별추계(2017~2047년)를 발표해 20년 후인 2037년에는 1인 가구가 35.7%에 달한 것으로 예측했다. 청년층이 분가한 뒤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 현상과 고령화 속 사별 등으로 1인 가구 증가폭이 크게 늘어나는 등의 원인이 반영되는 사회현상이다. 특히 청년 남성, 중년 남성, 노인 여성 1인 가구가 특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4인 가구 중심으로 설계된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을 시대에 맞춰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

2) 청년, 중년, 장년 세대별 구분 필요

2019 제주사회조사에서 제주도민들은 제주도 인구정책 중 ‘기업유치 등 좋은 일자리 창출 정책’ (32.8%), ‘자녀 돌봄 및 양육 지원 정책’ (30.8%), ‘청년 및 여성 취업/창업 지원 정책’ (28.7%)순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연령대별로 10대~20대 연령층은 ‘청년 및 여성 취업/창업정책’, 30대는 ‘자녀 돌봄 및 양육지원 정책’, 40~50대는 ‘기업유치 등 좋은 일자리창출 정책’, 60대 이상은 ‘노인 돌봄/부양 및 일자리정책’에 대한 응답이 높아 세대별로 인구에 따른 정책적 요구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번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영유아기(0세~6세), 아동기(7세~12세), 청소년기(13세~18세), 청년기(19세~34세), 장년기(35세~64세), 노인기(65세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을 청장년기라는 하나의 범주에 담아내기에는 청년기에서 장년기까지 20대에서 60대까지 세대별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그 요구 또한 다르다. 그러므로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또는 청년기 중장년기로 나누어 생애주기에 맞는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 생애발달과업 - 발달심리학자 하비거스트(Harvighurst, 1972)

: 각 생애단계별 발달과업 결과는 누적되어 생애전반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침
<생애주기 9단계>

태아기	0	5. 청소년기	12~18세
1. 영아기	0~2세	6. 청년기	18~40세
2. 유아기	2~4세	7. 중년기	40~60세
3. 학령전기	4~6세	8. 장년기	60~80세
4. 학령기	6~12세	9. 노년기	80세 이상

3) 생애 설계를 위한 제도적 지원

노사발전재단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는 6대 영역 기반으로 주로 직업/일 영역을 중심으로 40대이상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구직자·재직자 생애경력설계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6시간에서 20시간이며, 변화관리에서 경력관리 등의 내용으로 40+, 50+, 60+과정으로 중장년층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누어 교육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나 지자체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은 생애주기에 따른 인생설계를 일 중심의 경력과 교육지원에 그치지않고 재정부터 여가까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권 차원에서의 균형있는 사회보장차원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 주거지원, 문화생활을 지원하는 문화바우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돌봄지원 확대 등이 그것이다.

또한 올해 5월 재취업지원의무화법이 시행되면서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소속 근로자들의 전직과 재취업교육을 보장되었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그 대상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제도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재취업지원의무화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거나 참여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역	내용
직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분야나 숙련된 기술을 통해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는 활동 •자아실현을 통해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활동
재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금의 흐름과 재무 상태 파악 •노후의 삶을 위한 경제적 준비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과의 관계
대인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조직 내 대인관계에서의 원만한 의사소통 •사회적/조직 내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유지하는 활동 •균형 잡힌 식생활과 건강관리
여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적 휴식 및 활기찬 삶을 위한 활동 •취미 활동

<국민연금공단노후준비정보 中 6대영역 >

4) 다양한 일자리의 확대와 균형지원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소득(경제)과 관련된 정책은 일자리정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일자리관련 정책에 있어 세대간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해야 하며, 특히 생애주기에 따른 취업, 전직, 생애경력설계 등 공공성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번 연구에서 청장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청장년 일자리 확대 49.8%(165명), 다양한 가족 형태에 맞는 정책 지원 13.0%(43명), 주거 지원 10.9%(36명) 순으로 응답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자리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년, 중장년의 생애주기별로 요구하는 일자리의 형태는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신중년들의 은퇴는 빨라지고 있으나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살릴 수 있는 신중년 경력활용 일자리는 부족하다.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에서 2018년부터 JDC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이음일자리사업(신중년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이 그 수요를 일정 부분 해소하고 있으나 더 많은 일자리가 요구되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원격근무와 화상회의 등 언택트 시대에 맞는 일자리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시대변화에 따라 기업의 근로환경 변화를 지원하고 다양한 일자리의 개발, 일자리정책에서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지원이 필요하다.

토 론 문

‘제주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 에 대한 토론문(노인분야)



고경애 원장
소망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 에 대한 토론문(노인분야)

고경애 원장
소망요양원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 에 애써주심에 감사드리며 본 연구가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복지정책 개발 및 수립에 마중물이 되어 보다 행복한 도민의 삶을 기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인구는 2020년 8월 기준 104,389명, 전체인구의 15.5%로 고령사회이며 읍·면·동 일부 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의 인구구조를 이루고 있다⁸⁾.

제주특별자치도의 노인복지 분야 사회보장의 대표적인 정책은 <표1>과 같으며,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들의 보충적 소득창출과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및 교통비 지원 등 노인복지 분야의 선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노인요양시설 신규입소자 및 신규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비용 무상지원은 매우 앞선 정책으로 타 시도에의 도입 및 지원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였다.

<표1> 제주특별자치도 어르신 복지정책

구분	종류	비고
어르신 복지 정책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 저소득노인무료급식사업, 재가복지서비스 확충, 실버선생님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노인 건강진단, 노인 건강증진도모(노인공동작업장 운영), 경로당운영 지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저소득재가노인복지증진(식사배달 등),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지원(조손가정수당),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노인일자리전담기관(시니어클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관련행사 및 단체지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혼자사는노인 후원결연관리, 재가노인 복지증진, 도노인회연합회 운영비 등 지원, 도노인복지관 운영,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증진(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경로당활성화 프로그램 보급 및 순회지도, 경로당 시설지원	

8)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자료

구분	종류	비고
노후생활 안정지원	기초연금 지원, 무주택 저소득노인 주거비 지원, 저소득노인 목욕료 및 이·미용료 지원, 경로우대제도, 80세 이상 노인 장수수당 지원	
정부지원 건강지원사업	1차진단 : 치매검사와 11항목 2차진단 : 1차 건강진단 결과 유소견자에 한하여 해당 질환별로 실시 (정밀안전검사 등 29개항목)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 업	노인 사회 활동: 공익활동, 재능나눔활동 시장형 노인일자리: 시장형 사업단, 인력파견형 사업단,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 기업연계형	

(※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자료 정리)

그럼에도 노인과 노인가족의 보다 나은 삶을 기대하는 마음에 노인복지 현장에서 공감하는 문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제안에 앞서 노인인구를 연소노인(65세~74세), 고령노인(75세~84세), 초고령노인(8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1. 연소노인(65세~74세)에 대한 제안

1) 경로당 또는 노인복지관을 거점으로 하는 마을 단위의 노인여가프로그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야⁹⁾하나, 복지관 또는 경로당을 계속 확대 운영함은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다. 특히 보릿고개를 넘겨야 했던 지금의 노인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으로 나오는데 부담을 느낄 수 있기에 마을 단위로 설치된 마을회관으로 전문인력과 장비가 이동하여 커뮤니티 기능을 강화하고 스마트한 여가생활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면 보다 많은 노인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현실적으로 도시락배달,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가 노인의 일상에 정착하듯 노인의 심신을 지원하는 여가 프로그램 역시 다양성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2) 활발한 노인일자리사업 설계 및 소득보장의 기능 강화

연소노인 대부분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건강과 기능이 있으며 실제 더 일하고 싶으나 세팅된 프로그램에 따라 모두 비슷한 수준의 근로와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OECD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 1위, 노인 취업률 역시 1위인 통계자료는 노인 경

9)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제활동이 생계형 취업임을 알 수 있다. 실제 노인이 일하는 이유 73%가 생계비 마련이고 월평균 근로소득은 없거나 30만원 미만이 44.4%로 조사되었다¹⁰⁾. 또한 고용·노동 분야에서 노인의 61.2%가 일을 더 하고 싶으나 나이 때문에 은퇴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조사되었다¹¹⁾. 이 같은 통계자료 외에도 현장에서 만나는 제주지역 노인들의 성향을 고려할 때 노인의 기능에 따라 유동적이고, 소득보장의 기능을 강화한 적극적인 노일 일자리 설계와 도입이 필요하다.

2. 고령노인(75세~84세)에 대한 제안

1) 안정적인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

노인복지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전문인력 구조를 볼 때 요양보호사 인력이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하지만 최근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 노인학대 및 과실책임에 대한 부담, 자기개발 및 역량강화 기회 미비 등으로 노인요양시설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고 특히 젊은이들이 기피가 더 심각하다. 2018년 요양보호사의 연령은 50-60대가 81%로 돌봄 인력의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2018년 현재 부족한 인력이 2030년 역시 공급 부족을 예상하고¹²⁾ 있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돌봄 인력 수급이 심각하다.

이에 돌봄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교육 시간의 근로 인정 등 안정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며, 근로 강도에 적합한 처우, 특히 야간근로 및 치매노인 돌봄에 따른 위험수당 지급 등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의 안정적인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체의 비전이 필요하다.

2) 서비스제공기관 간의 연계성 확보 및 서비스의 효율성 추구

지역사회에서의 연계는 필수이기에 현장에서 경험하는 사례를 근거로 제안하고자 한다.

사례 : 『김○○ 어르신은 치매 5등급으로 재가에서 지역내 치매안심센터 검사 및 진단, 인지기능강화 프로그램, 사례관리 대상자로 서비스를 받던 중 2019년 ○월에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함. 입소 후 어르신의 치매문제행동 관찰 및 전반적인 인지상태와 욕구 사정을 마치고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는데 만만치 않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되었음. 나중에 우연한 기회에 지역 치매안심센터 직원이 어르신에 대한 안병을 물어 뒤늦은 정보 공유가 있었음. 그 후 유사한 케이스가 있었으나 실제 서비스 연계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음.』

10) 2017년 노인실태조사(201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11) 노인인권종합보고서(2018), 국가인권위원회

12)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노인장기요양인력 중장기확보방안(201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년 기준 제주도 노인의 치매유병율은 11.26%로 전국 10.28%보다 높으며¹³⁾, 독거노인의 11.4%가, 85세 이상의 16.3%가 치매 고위험군으로 조사되었다¹⁴⁾.

치매국가책임제의 주요 정책으로 지역 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사업추진이 국민들의 기대를 사고 있으며 그만큼 공공기관이 지역의 노인 및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협업이 이루어지면 결국 노인과 가족들에게 더 많은 서비스가 쉽게 전달될 것이다.

보통의 경우 재가에서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나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다가 더 이상 재가생활이 곤란해지면 노인요양시설로 입소하는 것을 노화 진행 과정의 수순이라 볼 때 지역사회 서비스제공기관 간의 연계성 확보는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과 직결되며 정부 또는 도의 중요한 정책실현의 효율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3. 초고령노인(85세 이상)에 대한 제안

1) 복지비용(본인부담금, 자부담, 이용료 등)의 적극적인 감경정책 확대

초고령노인, 특히 90세 이상 노인의 자녀들은 이미 70세 전후의 노인으로 부모를 장기간 봉양하기에 부담이 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노인들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에서 정함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을 받고 있다¹⁵⁾. 그러나 입소가 장기화되는 현장에서는 고령부모님의 급여비용 부담을 손자녀 세대로 이어져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는 사례도 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하여 84.1% 대부분 만족하고 있으나 불만족 사유로 54.4%가 비용부담이라 조사되었다¹⁶⁾. 이는 자녀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복지서비스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초고령노인들에게는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를 예견할 수 있으며, 실제 현장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 테두리를 벗어난 초고령노인의 복지비용을 국가나 도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노인 당사자의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노인가족의 안녕을 보장하여야 한다,

2) 노인의 의사결정지원 및 존엄한 임종을 존중하는 제도적·환경적 시스템 구축

존엄한 임종과 치매노인의 자기결정을 돕는 제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호스피스 이용의 기반을 조성하고 필요한 시책을 우선 마련해야 하는¹⁷⁾ 법률적 제도와 성년후견인 제도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노인의 의사결정지원 필요성에 대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게 인식하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¹⁸⁾ 그러나 현장에서 제도적 효과성을 체감하기

13) 2019 연차보고서(2019),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14) 독거노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보고서(2019),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치매센터

15)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2019.12.24.), 제1조

16) 2019 장기요양실태조사(2019), 보건복지부

1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17218호(2020. 4. 7), 제5조 ②

18) 독거노인의 자기결정권 인식과 의사결정지원 필요성에 대한 영향요인(김효정, 2019, 한국콘텐츠학회19권6호)

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히 질환이나 노환으로 임종을 앞둔 초고령노인과 그 가족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매우 간절하다. 실제 노인 대다수는 연명치료 반대에 2014년 88.9%, 2017년 91.8%로 드러날 만큼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고 있다¹⁹⁾ 그러나 노인 복지 현장에서 임종을 예견하는 가족 대부분은 생명윤리, 효의 가치관, 주변인의 시선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존엄한 임종을 결정하는 데 매우 혼란스러워하며 현실적인 한계를 경험한다. 그만큼 노인과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가족들은 매우 조심스럽고 정성을 다하고자 하나 정작 노인은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안타까운 일이다. 이에 노인의 존엄한 임종 및 현실적인 자기결정권을 존중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인 시스템에 행정당국의 진솔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

우리는 지금 고령사회를 살고 있으며 초고령사회를 예견하는 시점은 점점 앞당겨져서 불과 2025년에 우리의 현실이 될 것이다²⁰⁾. 처음 경험하는 코로나19 상황이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듯이 초고령사회 역시 그러한 존재일 것이다. 한편 다행인 것은 유럽 및 일본 등이 앞서 초고령사회를 살고 있기에 이를 참고하여 우리가 현명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대부분 언젠가 노인세대를 맞이합니다. 아무쪼록 제주특별자치도가 잘 준비하여 노인은 물론 노인 가족 모두 즉 도민이 행복한 삶을 기대한다.

19) 2017년 노인실태조사(201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 장래인구특별추계(2019), 통계청

토 론 문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 결과발표회



임유진 교수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 결과발표회

임유진 교수
고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통적 사회적 위험이 질병, 노령, 실업 등에 따른 소득의 중단과 감소였다면(Esping-Anderson, 1999), 탈산업화 사회의 사회구조적인 변화는 기존의 빈곤층 중심의 소득보장 중심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구조화하고 있다(김주희, 박병현, 2018). 삶의 다양한 영역의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복지의 패러다임도 변화하고 있는데, 공급자 중심에서 이용자나 참가자의 자기결정권, 선택권 중심의 수요자 중심,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보장정책에서 전국민의 사회서비스 확대 등의 생활보장정책을 중심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의 거점으로서 지역복지형의 사회복지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변화된 복지패러다임의 가시적 반영노력은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을 통해 가속화 되었고, 이후 보편적,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사회 중심의 포괄적 사회보장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구진이 수행한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에서 ‘생애주기별’로 대상을 구분한 것은 문제를 중심으로 한 구분보다 삶의 연속선상의 다양한 영역을 포괄할 수 있고(충남여성정책개발원, 2020) 문제를 가진 사회복지대상자 뿐만 아니라 도민 전체를 포함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기준이며, ‘사회보장’의 현황 및 방안을 분석함에 있어 전통적 영역의 소득보장 뿐 아니라 보건, 의료, 고용, 주택, 교육, 안전 등의 생활보장 영역을 포괄하여 현황과 향후 방안을 제시한 것은 여전히 유용한 접근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진이 수행한 생애주기별 인구 및 예산, 전달체계의 개괄적 분석과 설문조사, 전문가 FGI, SWOT분석 등을 통한 분석에 상당 부분 동의하며 몇 가지 사항을 타 시도의 현황 및 사례를 바탕으로 보충하고자 하며, 함께 고민해보고자 한다.

먼저, 도민의 생애주기별 욕구에 섬세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사업 설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사회보장사업이 수요 대응적으로 공급되고 있는지 검토해야한다. 청소년기 이하의 경우 전국과 비교하여 다소 비율이 높은 편이며, 전문가 FGI에서도 논의되었듯 기본적인 사회보장이 비교적 잘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장

년기의 경우 전국 평균과 비슷한 인구비율을 보이는 반면 청장년을 위한 특화 예산이 2.58%에 불과하여(아동청소년 32.27%, 노인 23.36%) 가장 시급한 개입이 필요한 영역으로 제시되고 있다. 한편 노인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는 비율이 낮은 편이며, 사회보장예산도 적절히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예산 투입의 경향은 실제 수요 대응적 공급의 불균형을 가져올 뿐 아니라 전체 도민이 균형 있는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이 실시되고 있음을 체감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일정수준의 수요 대응적 공급의 균형을 맞추어 가는 것이다. 토론자 소속지역인 부산시의 경우 전체 사회보장 예산 중 중장년기(35세-64세) 대상 사업 예산이 약12%, 청소년 및 청년기 5% 수준(부산복지개발원, 2016)으로 제주도와 청장년 인구가 유사하지만 제주도(2.58%)에 비해 높은 비율로 편성되어 있다. 최근 청장년층 인구유출과 인구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청장년층 인구유출에 대한 대응으로 적극적 사회보장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예로 파이팅 부산청년 3종세트(월세지원, 청년 디딤돌카드, 부산청년기쁨카드)를 지원하고, 부산형 일자리 사업 및 부산형 창업혁신도시 추진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업 정책을 추진하여 일 자리를 창출하였다. 그리고 인권노동정책과를 신설하여 질적개선을 꾀하는 등 질적개선에 서도 좋은 평가를 받아 2020년 지역일자리 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제주도 역시 2017년 전국고용률 66.6%, 대비 76.0%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민선 7기 목표치도 동일하게 76.0%로 전국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장년의 욕구 중 일자리 확대의 욕구가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위협요인으로 고용시장 열악 등이 지적되는 만큼 청장년에 대한 지원으로 고용과 관련된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이며, 이와 더불어 일과 생활을 균형있게 유지할 수 있는 생활 및 주거지원전략 등도 동시에 고려해 볼 만하다. 또한 균형있는 지원 뿐 아니라 정책 시행 방법이나 홍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그리고 광역자치 단체들이 대부분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감도는 떨어진다는 인식하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나 여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동일하게 부산시 역시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균형 있는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제도 시행을 부각하기 위해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동안’이라는 기치 아래 기존 수평적으로 나열 된 사업을 출산, 보육-청년-신중년-노년으로 수직적으로 연결하여 시민들이 맞춤형 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2019)에 따르면, 제주도의 고령화율은 전국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제주시(13.54%), 서귀포시(18.44%)로 지역간 편차가 크고, 노인 인구 중 85세 이상의 비율은 전국 11.96%로 전국 1위로 나타나 동일 노년기 내에서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동일 생애주기 내에서 연령 차이를 고려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노년기가 길어지고, 초기 노인과 후기 노인의 신체적 건강이나 심리사회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세분화된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단순 인구수 대비 전달체계 구축에서 나아가 지역간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전달체계 보완도 필요하다.

예산과 관련하여 생애주기별 사회보장정책의 전체 예산 확보 또한 꾸준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생애주기 사회보장 예산은 2019년 1조 3499억원(전체 예산 대비 27.97%)으로 2011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여 고무적이다. 그러나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비교하여 보면, 전체 예산 대비 사회보장 편성예산이 경기도(43.0%), 부산시(41.4%), 서울시(36.5%), 인천시(34.6%)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집행률 역시 낮은 수준(장애인복지뉴스, 2019.11.18.일자) 이므로 도민들이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가장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었던 것은 사회보장에 대한 정보제공의 필요성 부분이다. 다수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등에서 정보불충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접한바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지역별 온도차가 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복지플랫폼을 2019년부터 운영하여 시군별로 복지정보를 안내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재미와 참신함을 더해 누구나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산시의 경우 현재는 시행하지 않지만 다복동 사업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경험이 있는데 초창기 주민 체감도가 낮아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홍보물 제작 뿐 아니라 차량 랩핑, 버스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차원의 홍보를 실시하여 주민 인지도를 높인 사례가 있다. 제주도 역시 ‘제주복지통’을 2019년 개통하여 제주지역 위치정보 및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고무적인 시도로 보인다. 한걸음 나아가 제도 및 정책에 대한 마련과 더불어 적극적인 홍보 및 정보안내를 통해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생애주기별
사회보장 현황 및 향후 방안 연구
결과보고 및 토론회

- 발 행 일 : 2020년 10월
- 발 행 처 :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 발 행 인 : 고 승 화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8길 12-1
- 전 화 : 064)702-3784
- 팩 스 : 064)702-3383
- 홈페이지 : www.jejubokji.net
- 인 쇄 : 춘강인쇄사(☎ 064-702-7854)

이 책의 저작권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에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